



뉴욕시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역할

Thomas P. DiNapoli
뉴욕주 감사관

Kenneth B. Bleiwas
부감사관

보고서 8-2014-

2013년 11월

개요

- 뉴욕시의 이민자 인구는 미국 내 어느 도시보다 큽니다.
- 이민자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뉴욕시 전체의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11년에 이민자는 뉴욕시 인구의 37%를 차지했으며 세계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 뉴욕시의 이민자 인구는 미국 내 다른 대도시보다 다양합니다. 다른 여러 대도시와는 달리, 뉴욕시의 이민자들은 한 나라에서만 대규모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아닙니다.
- 2011년에 도시 노동 인구의 44%를 이민자들이 차지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뉴욕시 이민자들은 본토박이에 비하여 대공황에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재빨리 회복했습니다.
- 2011년까지, 이민자들은 불황 전보다 도시총생산 및 노동 인구 수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 OSC는 2011년에 이민자들이 경제활동에서 2,100억 달러 또는 뉴욕시 총도시생산의 약 3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011년에 다섯 개의 자치구 중에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퀸즈와 브루클린이었습니다.
-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지역들이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사업 성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역사 내내, 뉴욕시는 종교 및 정치적 자유,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이민자들을 자석처럼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이었습니다. 이민자의 물결은 뉴욕시의 경제성장을 도왔고, 문화 다양성에 기여했으며, 이런 추세는 21세기에 또 이어졌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이민자 인구는 급속히 성장했는데, 이는 도시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민자들은 높은 임금 성장 및 고도의 노동력 제공으로 큰 경제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뉴욕시의 이민자들은, 비록 대공황 동안 본토박이에 비하여 더 큰 퇴보를 겪었지만 꺾이지 않았으며, 근년에 이르러 더 많이 반등했습니다.

2010년 1월에, 뉴욕주 감사관실(OSC)은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10곳이 도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경제성장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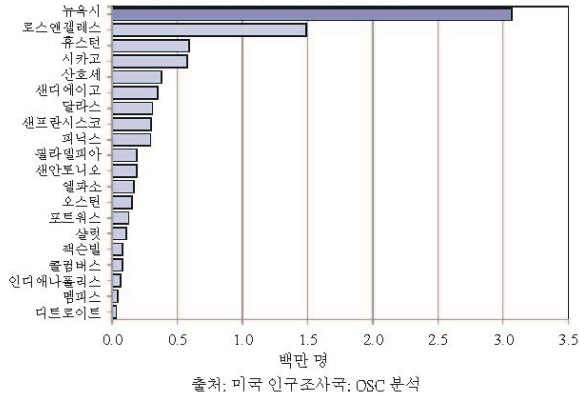
뉴욕시 이민자들은 광범위한 직업군에서 노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2011년에 뉴욕시 전체 노동 인구의 44%를 점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또한 뉴욕시 기업가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 걸쳐, 이민자들은 코니 아일랜드, 코로나, 엘름허스트, 플러싱, 잭슨 하이츠 외에도 여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OSC는 2011년에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제활동에서 2,100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추정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다양화되고 뉴욕시가 신규 사업 수요에 적응함에 따라, 뉴욕시가 이민자 인구의 혁신적 에너지 및 기술에 의존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민자의 도시

기회가 많고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활력이 넘치는 대도시인 뉴욕시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도시보다 이민자들(즉, 출생 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출생 거주민)이 더 많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인구는 두 번째로 이민자가 많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 1
미국의 상위 20개 대도시에서
2011년 외국 태생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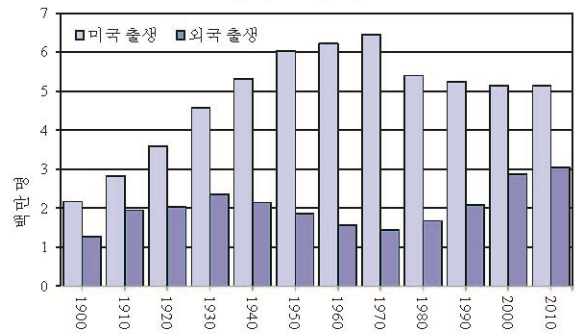


20세기 중 뉴욕시 인구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에 41%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이민자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1970년까지 이민자는 총인구의 18%만 차지했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이민자 비중은 증가하여 2011년까지 두 배인 37%에 도달했습니다.

산호세 및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둘 다 39%)이 뉴욕시보다 약간 더 높은 반면, 뉴욕시의 이민자 인구는 훨씬 다양합니다. 다른 여러 대도시와 달리, 뉴욕시는 한 나라에서만 대규모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50%가 넘는 뉴욕시 이민자 인구가 다음 10개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큰 순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멕시코, 자메이카, 에쿠아도르, 가이아나,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도, 방글라데시). 러시아, 대한민국,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태리, 필리핀 및 파키스탄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시 전체 인구는 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뉴욕시 이민자 인구가 두 배가 되는 동안, 본토박이 인구는 20%나 감소했습니다(그림2 참조).

그림 2
뉴욕시 인구 추세



노동력

290,000명의 통근자를 포함하여, 거의 1,900,000명의 이민자가 뉴욕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뉴욕시 사업가(자영업자 등)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가 총노동인구의 44%를 차지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구성했습니다(그림3 참조). 각 산업은, (의료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조합에 가입한 업계 종사들과 기타 지원 직업 종사자(예: 사업 및 행정 업무,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직원) 등 광범위한 직업군을 포함합니다.

그림 3
산업별 이민자 고용 비율

업종	비중
개인 서비스(네일 샵, 세탁업 등)	73%
자동차 및 수리 서비스	62%
건설	59%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	55%
보건 의료 및 사회 복지	53%
교통	53%
제조	50%
소매 및 도매 거래	46%
전체 산업	44%
금융 활동	35%
사업 서비스	33%
기타 모든 산업	33%
교육 서비스	29%
정보	19%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OSC 분석

그림 4는, 뉴욕시의 각 직업별로 이민자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통근자를 포함하여) 이민자 노동자가 가장 많은 25개의 직업을 보여줍니다. 이들 직업에서 이민자는 뉴욕시 총이민자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노동자가 가장 많은 다섯 개의 직업은 간호직, 정신 의학 및 가정 치료 보조, 수위 및

건물 청소, 가정부 및 가사 도우미, 택시 운전자 및 자가용 운전자, 건설 노동직입니다.

그림 4
뉴욕시에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

직업	비중
1 택시 운전자 및 기사	88%
2 도우미 및 가정부	83%
3 요리사 및 주방장	79%
4 요리사	76%
5 건설 현장 근로자	75%
6 간호, 정신 의학, 가정 간호 도우미	75%
7 요식업 근로자	75%
8 개인 관리 도우미	71%
9 목수	67%
10 보육 관련 근로자	65%
11 관리인 및 건물 청소인	62%
12 운전자 및 트럭 운전자	61%
13 공인 간호사	59%
14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57%
15 캐시어	55%
16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	49%
17 소매 판매 노동자의 일선 관리자	49%
뉴욕시 총노동인구	44%
18 회계사 및 회계 감사원	40%
19 소매 판매원	40%
20 경비원 및 청원 경찰	39%
21 재무 관리자	35%
22 디자이너	34%
23 기타 관리자	32%
24 비서 및 행정 보조원	27%
25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25%

주: 이들 25개 직업이 뉴욕시 이민자 노동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OSC 분석

비록 이민자가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수의 고임금 직종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직업 가운데, 일부 직업은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 회계사 및 회계 감사관, 재무관리자를 포함하여, 특별한 기술을 요합니다.

교육, 높은 취업률 및 고임금 직업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보고한 최근 추세는, 이민자들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뉴욕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토박이 인구나와 비교하여, 이민자 인구가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비중이 적은 반면, 이 차이는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박사 학위 단계에서는 실제로 차이가 사라집니다.

경제적 기여

OSC 추정에 따르면, 2011년에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제활동에서 2,100억 달러 또는 뉴욕시 총도시생산(GDP)의 약 3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시 경제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는 63%(인플레이션 비율의 두 배 이상)나 증가함으로써 성장했는데, 이는 본토박이 인구가 기여한 성장율(53%)보다 더 빠른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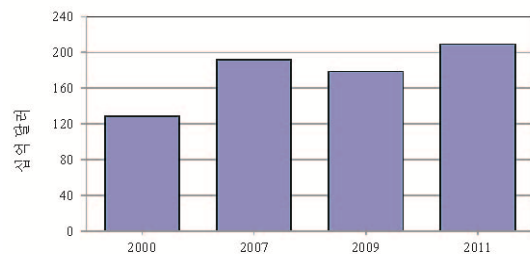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의 많은 부분이 높은 노동력 제공 및 임금 인상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노동력 비중은 2000년에 40%에서 2011년에 44%로 증가했습니다. OSC는 같은 기간 동안 이민자 임금에서 평균 연간 성장율이 거의 4%로, 본토박이 인구의 임금 증가율(약 3%)은 물론 인플레이션 비율을 추월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민자들은 경기불황으로 본토박이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재빨리 회복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민자들의 임금은 12%나 줄어든 반면, 본토박이 임금은 9%로 더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외국 태생으로 활동하는 노동자 비중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년 동안, 이민자 임금은 16%가 증가했으며(본토박이 인구의 임금 증가율보다 빠른), 2011년까지, 활동하는 노동자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불황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반등이 GDP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 이는 2011년까지 경기불황 이전 수준을 초과했습니다(그림 5 참조).

그림 5

뉴욕시 총도시생산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



주: 총도시생산 추정은 HIS Global Insight, 뉴욕주 노동부(NYS Department of Labor) 및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출처: OSC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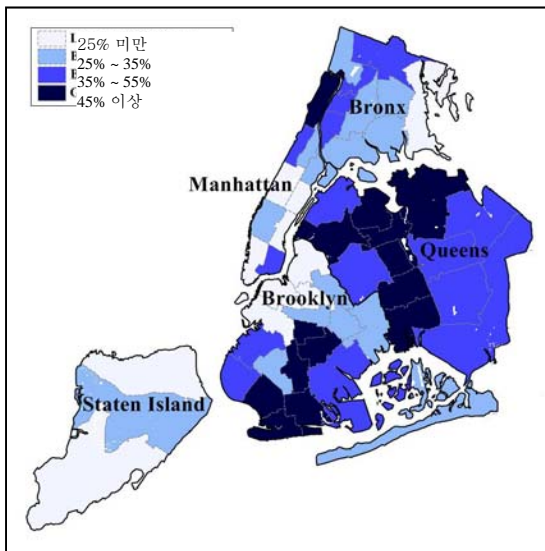
도시 내 지역

특정한 지역들이 뉴욕시의 중심을 형성하며, 이민자 지역사회는 각 지역의 활력이 넘치는 특징에 기여합니다. 지역의 구성은, 상이한 이민자 집단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뉴욕시에 55개의 지리적 지역을 규정하고 그 지역에 연결된 구역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묶어 지역 명칭을 붙입니다.¹ 그림 6은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지역들에서 2011년 뉴욕시의 이민자 비중을 보여줍니다.

그림 6

2011년, 인구 조사에서 규정된 지역 지도를 통해 보는 뉴욕시에서의 이민자 비중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OSC 분석

2011년에, 다섯 개 자치구 가운데 퀸즈(48%) 및 브루클린(37%)에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조사에서 규정된 지역 10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들 모두 퀸즈 아니면 브루클린에 위치했습니다(그림 7 참조). 한 곳의 예외는 맨하튼에 있는 워싱턴 하이츠/인우드 지역인데, 이곳은 2011년에 거주자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였습니다.

¹ 이들 지역의 경계는 지역 명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림 7

2011년,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지역들 중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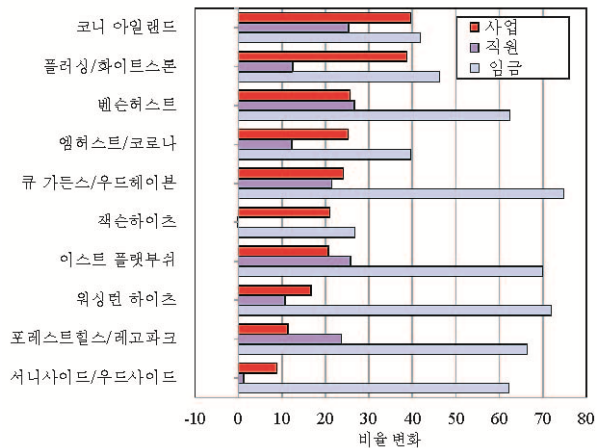
지역	자치구	비중
엘머스트/코로나	퀸즈	70%
잭슨하이츠	퀸즈	63%
서니사이드/우드사이드	퀸즈	60%
코니 아일랜드	브루클린	59%
플러싱/화이트스톤	퀸즈	57%
벤슨허스트	브루클린	55%
이스트 플랫부쉬	브루클린	52%
포레스트힐스/레고파크	퀸즈	49%
워싱턴 하이츠/인우드	맨하탄	49%
큐 가든스/우드헤이븐	퀸즈	49%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OSC 분석

2010년 1월에, 뉴욕주 감사관실이 *뉴욕시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역할(The Role of Immigrants in the New York City Economy)*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여기서 OSC는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지역들 중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10곳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뉴욕시의 여타 지역보다 더 높은 사업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논의하는 것과 같이, 이런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림 8

인구 조사에서 규정한 지역들 중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 지역의 사업 성장(2000년 ~ 2011년)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OSC 분석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사업체 숫자는, 뉴욕시 내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이 7%였던 것에 비해, 거의 23%(소규모 회사에 집중)나 성장했습니다(그림 8 참조). 이들 회사에서 직원 및 급여의 증가는 또한, 직원 증가 숫자에서 4%에 비교하여 11%, 급여 증가에서 40%에 비교하여 56%로, 뉴욕시 내 다른 지역에서의 증가를 추월했습니다.